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글. 이상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과연 원본인가?

세종 25년(144년) 9월에 세종이 창제한 ‘언문 28자’에 대한 어제 서문 및 예의편, 이를 해설한 해례편과 정인지 서문을 합간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 28년(1446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원본 해례본 『훈민정음』은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어 1962년에 국보 제70호로 지정 간송미술관 소장본이 유일하게 전해 오며,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간송미술관 소장본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될 당시에도 표지와 1~2엽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원본 복원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원본 해례본의 이본이 새로 발견된다면 종래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의문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곧 책의 표지 명칭이나 권두 수제 명칭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 모서리가 일부 훼손되어 글씨가 마모된 부분의 구두점이나 글자의 네 모서리에 들어가는 일부 첩운 글자의 권점과 성조와 한자음의 표기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66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한글의 창제자와 창제 관련 주요 기록으로서 세계 인류 문화의 기록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금까지 유일본으로 표지와 앞 두 엽이 낙장된 것을 복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해례본이 발견된 것은

99



01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9엽(뒷장)

그런데 지난 2008년 7월 30일에 신문과 방송 보도를 통해서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본으로 추정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한글의 창제자와 창제 관련 주요 기록으로서 세계 인류 문화의 기록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금까지 유일본으로 표지와 앞 두 엽이 낙장된 것을 복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해례본이 발견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언론 보도 당시에 한국국학진흥원의 소속 연구원이 실사하여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임을 확인하였다.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동 MBC 뉴스 방송팀이 촬영하였다. 당시 국립국어원장에 재직하고 있던 필자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튿날 경북 상주로 달려가 원본의 일부를 직접 실사하고 안동 MBC에서 촬영된 편집 이전의 화면 전 분량의 영상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세종 당시에 간행된 원본으로 간주한 바 있다. 또한 필자는 자료의 정밀한 검토와 함께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한글』 298:5-50, 2012)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책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이라 하고, 서지적인 면에서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세종 당시에 간행된 원본임을 밝힌 바가 있다.

현재의 이 판본은 제5엽부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9엽(사진 참조)의 하단 3분의 1이 기름 때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첫 장으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판심제가 ‘정음해례(正音解例)’인 부분 5, 6, 7, 8, 9, 10, 11, 12, 13, 14, 26, 27, 28, 도합 13엽이 공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세종의 서문과 예의(판심제 ‘正音’ 1~4)부분이 없고, 해례 부분도 제1엽에서 제4엽까지가 없으며, 제15엽에서 25엽까지 그리고 정인지 서문의 마지막 장(즉 ‘正音解例’ 29엽)도 없어 매우 불완전한 잔본임이 분명하다.

이 책은 경북 상주에 있는 골동품 가게(주인 조용훈)에서 유출된 것인데 조용훈 씨 말에 의하면 안동에서 구입해 온 것이라고 전한다. 그러던 중 상주에 거주하는 배익기 씨가 다른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훔쳐 갔다는 주장과 함께 불행히도 이 책은 소유주 송사에 휘말려 세상에 잠깐 모습을 드러내었다가 현재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민사 소송 결과는 원소유주가 조용훈 씨라는 판결을 받고는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 2012년 5월 3일자로 문화재청에 기증식을 가졌다. 그 후 형사 소송 결과 배익기 씨가 훔친 물건이라는 물증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 씨가 승소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다만 안동 MBC에서 촬영된 편집 이전의 화면 전 분량을 검토해 보면 이

정음
해례

책의 발견 경위를 묻는 안동 MBC의 기자 질문에 배익기 씨가 현재 본인이 거주(상주)하는 집 천정을 수리하다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을 한 영상 기록물이 있어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이 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자산이라는 면에서도 현 소지자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루 빨리 국가 문화재로 기증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들이 실물을 보면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현재 배익기 씨가 은닉·보관하고 있어서 보관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다만 필자가 언론 공개 당시에 배익기 씨 댁을 방문하여 실사한 내용과 안동 MBC에서 촬영한 전체 화상 자료를 검토 해 본 결과 총 33엽 가운데 약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 총 13엽만 언론에 공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배익기 씨는 4엽만 없고 나머지 29엽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낙장이 매우 많은 불완전한 판본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이라고 잠정적으로 부르 고자 한다.

이 판본은 현재 <오성제자고(五聲制字攷)>라는 제명이 달린 개장한 표지와 해례편 잔엽 13엽 이외는 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 소지자의 진술에 의하면 원간 표지를 비롯하여 어제 서문 부분 2엽과 마지막 33엽을 비롯한 해례편 중간 부분의 1·2엽과 마지막 33엽이 떨어져나간 잔엽본이라고 한다. 유일본으로 알려져 온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도 세종의 서문 부분 2엽이 떨어져 나간 낙장본의 상태이기 때문에 완본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공개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도 불과 13엽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어제 서문



02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판본 침눈

과 예의편 부분인 본문은 단 1엽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해례본문의 나머지 부분도 존재 유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 가운데 제일 앞부분인 9엽 전면은 3분의 1 이상 부식된 것을 보면 그 앞의 해례본의 본문도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남아 있더라도 부식 정도가 매우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이 유일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이 제기되었고 또 이것을 영인한 여러 종의 영인본과 복각본에도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오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없었다.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에 남아 있는 13엽의 부분만이라도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과의 상호 대교를 통해 의문시되었던 부분을 확정지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판본이 비록 잔엽본이기는 하지만 원간본과 동일본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자료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원간본임을 입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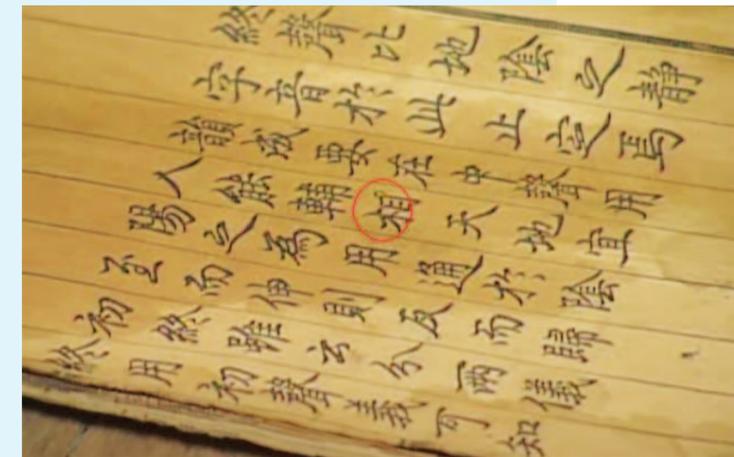
현재 공개된 이 판본의 표지는 개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능화판의 문양은 연꽃과 보상화문(寶相華紋)이 어우러진 16~17세기까지의 유형이며, 5침안의 장정 흔적이 있다. 현재 이 판본은 제본의 실이 일부 남아 있는 파판본의 상태이며 각장의 내부에 남은 당시의 침안을 볼 때 4침안, 5침안의 흔적이 있다. 현존 표지의 침안은 5침안이므로 초간될 당시의 제본 형태는 4침안으로 추정된다.

개장 표지에는 '오성제자고(五聲制字攷)'라고 묵서로 적혀 있다. 이 판본의 소유주가 제판본 후에 서명을 추정하여 적은 것

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서명을 쓴 시기는 앞부분이 낙장 되어 원제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쓴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 판본이 유일본으로 알려진 원본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본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13엽을 가지고 구두 권점 및 첩운 권점과 성조 표기를 살펴 본 결과 구두 권점과 첩운 권점, 성조의 표기가 완전하게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원본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판본이 전면 공개되는 날이 오면 간송미술관 소장본 『훈민정음』이 유일본이었을 때 제기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판본과의 대교를 통해 문제점을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증거로는 반곽이나 계선의 파손 유무를 확인해 보아도 두 판본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판본은 동일한 목판에서 새출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간송미술관 소장본은 개장과 함께 원본의 아래와 윗부분의 일부를 잘라낸 것이 확인되었다. 곧 잔엽 상주본은 위아래가 잘리지 않은 원래의 판본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존 간송본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안병희(2007 : 28) 교수는 원본의 크기가 새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판본판의 크기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세로 32.2cm, 가로 16.3cm 혹은 세로 29cm, 가로 20cm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 판본의 크기를 세로 29.3cm, 가로 20.1cm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모두 보수와 보사를 한 이후 축소된 개장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였다. 이번 이 판본의 9엽 1장의 크기를 측정해 본 결과 이상백(1957 : 21) 교수가 밝힌 것과 비슷한 세로 32cm, 가로 16cm 정도의 크기였다. 물론 9엽도 약간 쭈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 결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본 『훈민정음』 본래의 크기는 안병희 교수가 지적한 세로 32.2cm, 가로 16.3cm 내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판본의 반곽의 크기는 9엽 한 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로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와 동일한 세로 22.6cm, 가로 16.1cm(9엽 기준)이다. 따라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은 원간본과 동일본으로 그 일부 잔본임이 분명하다.

비록 늦었지만 문화재청에서는 『훈민정음』에 대한 서지적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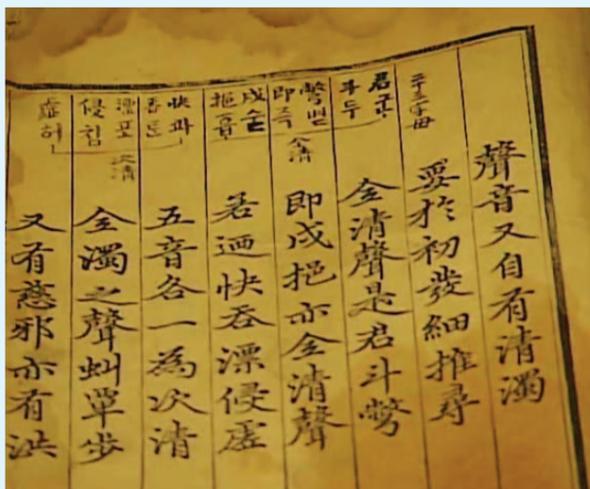
03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18엽 앞면 4행, '상(相)'자의 첩운 권

사가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적 기록 유산에 대한 서지적 정보가 이처럼 불완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각 엽별 반곽의 크기나 행간의 크기 등 형태서지적인 정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잔엽 상주본 행간 필사 내용 검토

이 판본 원소장자로 추정되는 분이 행간 아래 위에 필사 목서를 남겼다. 이 목서 기록은 당시 성운학자로서 대단한 식견을 가진 이의 기록으로 추정되며, 이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면 원래 소장자가 어떤 가문의 학자였는지 가능할 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목서 기록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나타나는 오음 곧, 조음 위치(아, 설, 순, 치, 후)와 오성(궁, 상, 각, 치, 우)과의 배치가 『고금운회거요』를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홍무정운역훈』 이후 오음과 오성의 배치가 달라진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판본 10ㄴ, 11ㄱ, 11ㄴ, 12ㄱ, 12ㄴ의 행간 아래위 여백에 묵서로 된 필사 기록이 남아 있다. 제자해의 결 부분인 14엽 뒷면과 15~16엽 상·하단 행간 공간에 『훈민정음』의 제자해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운도의 오음계 배치를 기록한 내용이다. 이 필사 내용은 한글 자모 순서의



04 자모 배열에 대한 필사 기록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성의 배치 차이에 대한 내용을 고증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오음계의 배치와 한자음의 표준음 이해를 위해 만든 『홍무정운역훈』의 오음계는 차이가 있다. 곧 『고금운회거요』 계열의 운도를 기준으로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입술소리(脣)–궁(宮)’, ‘목구멍소리(喉)–우(羽)’의 오음계 배치로 되었지만 『홍무정운』 계열의 중국의 운서에는 ‘입술소리(脣)–우(羽)’, ‘목구멍소리(喉)–궁(宮)’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운학자들 간에 논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인지의 서문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그러나 풍토가 구별되고 성기 또한 따라서 다른 즉”이라 하였으며, 『동국정운』 서문에서도 “대저 음에 같고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며, 사람에 따라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지방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니, 대개 지세가 다르면 풍기가 틀리고 풍기가 다르면 호흡이 다르니”라고 대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 행간 필사 내용과 같은 반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병와 이형상은 『악학편고』에서 종률(鍾律)의 오음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으며, 박성원의 『화음정음통석고』의 서에는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처음부터 아, 설, 순, 치, 후 등 성모의 음계와 합벽 등의 운모의 발음의 묘에 밝지 못

해서 오음의 음계가 뒤섞였다. 그래서 궁음이 혹 우음이 되고 상음이 혹 치음이 되어 아직도 일정한 음운이 없으니 이것은 실로 우리나라에서 언문이 돌로 갈라지고(일치하지 않음) 또 뜻에만 중점을 두고 음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至於我東, 則初不明其牙舌脣齒唇喉關闕出聲之妙□ 故五音相混, 宮或爲羽, 商或爲齒, 尙無一定之音韻, 此實我東諺文爲二, 務於義而忽於音之致也□) - 『화음정음통석고』 서문.

라고 하여 『훈민정음』 해례의 오음계 배치가 『훈민정음』 해례본, 『홍무정운역훈』, 『사성통해』 등과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었다. 곧 음양오행의 동아시아의 사상 체계로 만든 훈민정음 제자의 원리를 밝힌 제자해에서 제시한 ‘脣–宮’의 배합과 ‘喉–羽’의 배합이 문제가 있음 지적하였다. 곧 “원화운보급신공 후음위궁토(元和韻譜及神珙 喉音爲宮土)”라고 하여 ‘喉–宮’의 배합이 옳으며, 이어서 “운보급심약신공 개이순 위우음(韻譜及沈約神珙 皆以脣爲羽音)”이라고 하여 ‘脣–羽’의 배합이 옳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오음, 오성, 오계, 오시 등뿐만 아니라 특히 울려와 성음의 이치를 성운학과 통합한, 곧 전체를 하나의 원리로 관통하고 하나를 곧 전체로 일관하는 통합적 구조주의의 원리에서 오성과 오음(또는 칠성과 칠음)의 배합 원리가 심약의 『원화운보』 <오음지도(五音之圖)>의 “宮 舌居中(喉音), 角 舌縮却(牙音), 徵 舌拄齒(舌頭, 舌上), 商 口開張(齒頭, 正齒), 羽 口撮聚(脣重, 脣輕)”로 기술한 내용과 다른 점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께서 원나라 북방음이 반영된 『고금운회거요』를 기준으로 오음과 오성을 결정했던 결과이다. 그 이후 명나라에서는 심약의 『원화운보』를 기준으로 한 『홍무정운』의 운도에서

이들 배치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 필사 기록은 조선 후기 성운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필사 시기와 이 『훈민정음』의 원 소장 가문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필사자를 추적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만 해 둔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미래

지금까지 잔본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공개 경위와 이 판본의 가치에 대해 가볍게 훑어보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분명히 전 인류의 위대한 기록 자산의 하나이다. 차체에 우리나라 기록 문화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문화재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특히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글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한문본으로 인출되었던 『훈민정음』 해례본을 15세기 당대의 모습으로 언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글의 해설서가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방과형의 한글의 자체가 한자와 변별력이 떨어져 한글을 한자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다. 따라서 당시의 한자음에 대한 정교한 연구와 구결도를 확정하여 예의본의 언해본처럼 해례본의 언해 작업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한다. 세종 당대에 이러한 일이 추진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한글의 세계화 사업으로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의 외국어 번역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독본의 출판과 더불어 전 세계 다국적 언어로 번역하여 학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한글 연구의 세계화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한글은 이제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는 가치 있는 인류의 문자 가운데 하나이다. 한글을 통한 지식 생산과 관리를 위해 눈을 떠야 할 시기이다. 안으로는 많은 한문으로 된 전적의 국역 사업과 함께 흩어져 있는 한글 고문서와 시문 등의 자료를 국가 기록물로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깥으로는 한글을 무문자 국가의 음성 기록 자료를 전사하는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인류의 지식 정보를 갈무리하는 기구로 개발하는 일에도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상주에서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에 모습을 온 국민과 함께 가까이 다 가설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빨리 오기를 염원한다. 

66

한글은 이제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는
가치 있는 인류의 문자
가운데 하나이다.

한글을 통한
지식 생산과 관리를 위해
눈을 떠야 할 시기이다.

99

정음
훈민

필자 소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립국어원장, 『겨레말큰사전』 편찬이사를 역임하였다. 『동지 밖의 언어』(생각과나무, 2008), 『방언의 미학』(살림, 2007) 외 <잔업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한글』 제298호, 2012), 『훈민정음』에 나타난 사성권점 분석(『어문학』 제100호, 2009) 등 다수의 논저가 있다.